

한국의 해방 : 러시아의 시각

유리 바닌(Yu. V. Vanin, 러시아 과학원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과 과장, 역사학)

한국의 해방은 한국 역사상 두드러진 사건이다. 한민족은 1945년 8월 연합국이 일본 침략자들을 파멸시킨 결과로 40여 년의 식민지 노예 상태에서 탈피하였다. 한편 이는 세계적인 범주의 사건이기도 하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동북아시아의 여타 지역들과 태평양상의 섬들에서 연합국이 수행한 작전들과 함께 극동 전쟁사의 결정적 장인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완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사의 한국 부분은 러시아 이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미국, 영국 및 여타 다른 나라들이 한반도에서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외국의 역사학에서도 그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해방이 되자마자 냉전 참여자 중의 하나가 되었다. 소련과 미국의 대립은 태평양 전쟁의 최종 단계에 대한 평가에도 반영되었다. 각 진영은 다른 진영이 승리에 기여한 것에 대해 침묵하거나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자기 진영의 기여

는 과대 포장하였다.

유감스럽게도 한반도에서의 전투 행동 과정 및 의미는 한국 내에서도 충분한 규명과 이해가 따르지 못하였다. 많은 부분에서 무조건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남북한의 역사가들은 자국의 해방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였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남한의 역사학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태평양의 섬들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연합국의 성공적인 작전 수행으로 인하여 일본의 전쟁 패배는 1945년 여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됨으로써 일본은 저항을 결정적으로 포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은 조선에서의 지배권 확립을 포함하여 확장을 기도할 목적으로 타인이 쟁취한 승리의 결실을 이용하고자 황급히 극동의 전쟁에 참전하였다. 조선에서의 전쟁은 단기간이었고 소련으로 하여금 큰 노력을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한국의 해방에서 소련이 행한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도 논할 이유가 없다.

필자의 견해로는 그러한 개념은 충분한 지식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의거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냉전 시기의 왜곡된 이념적 대결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에서는 1945년 8월 이후 10여 년간 소련을 조선의 유일한 해방자로 간주했다. 평양 중심부의 모란봉에 현재까지 서 있는 해방 기념비인 해방탑은 이의 가시적인 증거이다. 이 기념비에는 일본 제국주의를 패퇴시키고 조선 민족에게 자유와 독립의 길을 열어준 소련군에 대한 감사의 글이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새겨져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리고 북한의 이념과 정치에 주체사상이 결부됨에 따라 그러한 유형의 발언은 점차 줄어들었으며 중국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현재는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인민혁명군만이 조선을 해방시켰다고 공

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소련군의 역할을 상기하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민족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 한순간도 순응하지 않았다. 조선의 애국 세력은 국내와 그 주변에서 자국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용감하고 헌신적인 투쟁을 부단하게 전개하였다. 수천 명의 사람이 이를 위해 중국의 반일 부대와 만주와 조선 북부의 빨치산 부대 등에서 무기를 들고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소련은 그들에게 정신적·물질적으로 지원하였다. 조선의 해방 운동은 소련, 러시아의 학술 및 대중 잡지들에 광범위하게, 그리고 매우 귀중하게 소개되었다.

그러나 조선 애국자들과 대립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힘이 너무나 강력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심지어는 여타 동맹국을 포함한 미국과 영국 같은 강대국들의 단합된 힘을 가지고도 거의 4년에 걸친 힘겨운 전쟁을 수행해야 하였다. 장기간의 식민지 약탈, 대대적인 탄압, 정복자들의 파괴적인 행동 등으로 인해 허약해진 조선이 일거에 이를 달성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소련과 여타 나라들이 조선에 자유를 가져다준 것이 조선 민족의 진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전혀 아니며, 일본 제국주의의 붕괴에 대한 조선 민족의 상응하는 기여를 감소시키는 것도 아니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대일 전쟁 전 소련의 대한 반도 이해 관계, 전쟁 준비 과정, 북한 지역에서 소련군의 전투 경로, 북한 진주 초기 소련군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응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의 해방에서 소련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되돌아봄으로써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시도할 것이다. 이 모두는 지금까지 소련의 대일전 참전과 한국의 해방 과정에서 통용되고 있는 고정 관념과 '오류'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 글의 구성은 여태까지 소련에서 출간된 각종 관련 문헌과 러시아 문서보관소의 사료에 힘입었다. 특히 당시 소련 당국 및 소련군에서 작성된 문서 자료(사료)는 본 논문의 집필에 큰 도움이 되었다.

1. 소련의 대일본 전쟁 참전 동기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1월 말 파시스트 독일과의 전쟁을 조율하기 위해 미국, 영국 및 소련의 최고 지도자들이 테헤란에서 만남을 가졌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침략자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짐은 소련의 몫이었다. 테헤란 회담에서 스탈린은 독일을 붕괴시킨 후 당시 태평양상의 섬들과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던 연합국측에 소련이 가담할 것을 약속하였다.

테헤란에서 소련 지도자가 언급한 이 약속은 연합국에는 불가피할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영국 수상인 처칠은 1944년 9월 스탈린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당신이 테헤란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독일군이 패배하고 괴멸되는 즉시 일본과의 전쟁에 소련이 개입하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대통령!) 또한 이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러시아 전선의 개시는 특히 공중에서 일본인들에게 그들의 패배를 상당히 앞당길 수 있는 파멸과 쇠락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²⁾

1) 이는 당시 미국 대통령인 루스벨트를 지칭하는 것이다.

2) Переписка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с Президетами США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

1945년 초반 현재 일본과의 전쟁을 승리로 완결짓는 것은 아직 먼 이야기였다. 당시 연합군은 1945년 7월에야 완전히 장악하게 된 필리핀, 인도차이나 국가들, 미얀마, 중국 남부 지역, 태평양 남부의 많은 섬 등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중심부인 일본 제도까지의 길고도 힘든 전쟁의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은 전쟁에서의 심각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도 매우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1945년 여름 일본은 총병력 700만 이상, 항공기 1만 대 이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³⁾ 모든 병력의 3분의 1 정도가 일본 본토를 방어하는 데 투입되고, 나머지가 태평양의 섬들과 아시아 대륙에 배치되었다. 소련 국경 인접의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관동군은 일본 지상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전투력이 강한 부대였다. 관동군은 약 1백만 명에 달했으며, 5천 문 이상의 포와 1천 대 이상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만주와 조선에는 예비 전략 자원과 완성된 군수 물자들이 축적되어 있었다.⁴⁾

조선에는 일본군 제17전선군이 주둔하였다. 여기에 소속된 지상군과 해군은 총 31만 9천400명에 달했다.⁵⁾ 조선과 소련의 국경을 연해서는 강력하고 군사적으로 장비가 잘 갖춰진 4개의 요새 구역이 조성되어 있었다. 일본은 조선 북동부 해안 지역의 웅기(雄基), 나진(羅津), 청진(淸津), 원산(元山)항을 완전한 방어진을 갖춘 채 자국의 거대한 해군 기

рам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во врем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1941-1945년 대조국 전쟁기 미국 대통령 및 영국 수상과 소련 내각 회의 대표자와의 서신). Т. 1. М., 1957, с. 56.

3)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소련군사백과사전). Т. 8. М., 1980, с. 56.

4) Победа СССР в войне с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послевоенное развитие Восточной 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군국주의 일본과의 전쟁에서 소련의 승리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전후 발전). М., 1977, с. 5~6.

5) Таку시로 Хатторон(Такусиро Хатторон), Япония в войне 1941-1945(1941-1945년 전쟁에서의 일본). М., 1973, с. 597.

지로 만들었다. 공중에서는 제5항공군이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엄호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조선에서의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일본 지도부의 계획은 아시아 대륙의 경우 중국과 조선을 유리한 조건하에서 영미 연합군과 결정적 대회전을 펼칠 장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계획에 의하면 여기에서 일본은 승리를 거두어야만 했다.

미국과 영국은 해군과 공군력에서 일본에 우위를 보이면서도 지상군에 있어서는 상당한 열세를 면치 못했다. 영미 연합군은 태평양 전선에 총 36개 사단(병력 55만 이하)을 투입하였는데, 그들은 각각의 섬들과 대륙 지역들에 분산되어 있었다.⁶⁾ 연합국 참모부에서는 군사력 관계를 고려하여 1945년 말이나 1946년 초에야 그들의 군대가 직접 일본 제도의 상륙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전쟁 말기에도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 섬까지만 점령한 상태였다.

자국 본토에서 불굴의 결전을 계획하고 있는 적이 상당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아채던 연합국은 그들 앞에 놓인 대일본 작전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일본에서 그들 군대의 예상 손실이 1백만 명에 달할 것이고 전쟁은 1947년 말까지로 연장될 것이라는 판단으로부터 출발하였다.⁷⁾ 소련측으로부터 적극적인 협력을 받을 경우에만 이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3성조정위원회가 1945년 1월 23일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비망록에서 다음과 같이 쓴 이유였던 것이다.

“러시아가 가능한 한 빨리 참전하는 것이…… 태평양상에서 우리의 작전을 최대한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⁸⁾

6) Победа СССР в войне с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послевоенное развитие Восточной 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 34.

7) Там же.

8) Там же, с. 7.

자국 영토에서 적을 물리친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을 해방시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독일 침략자들을 결정적으로 분쇄하기 위해 많은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1945년 초에 이미 파시스트 독일의 패배가 가까워졌음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소련은 이제 테헤란에서 연합국에 언급했던 그 약속을 확실히하고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45년 2월 11일 소련의 알타⁹⁾에서 미국, 영국, 소련 수반 사이에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소련은 독일이 항복한 후 2~3개월 뒤에 연합국 일원으로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협정에 조인하였다. 소련은 참전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요구를 제시하였다. 과거 일본에 탈취당했던 러시아 영토의 반환(사할린 섬 남부 지역, 쿠릴 제도 등), 몽골인민공화국의 독립 유지(중국이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소련의 일부 군사·전략적 및 경제적 이익 보장(중국 여순항의 임차 및 소련 해군 기지로 이용, 중국 동북 지방 2개 철도를 중국과 공동 사용 등). 조선에 대해서는 소련이 어떠한 특별한 이해 관계도 없었기 때문에 알타 협약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¹⁰⁾

앞의 언급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련의 대일본 전쟁 참전은 테헤란 회담 이래로 이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연합국의 희망, 심지어는 일정한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첫째, 소련이 자국 군사력으로 당시까지도 연합국에 불리하던 태평양 전쟁에서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 둘째, 소련이 자국 군대로 일본 지상군을 대륙에서 고착시켜 그곳의 일본군이 일본 본토를 방어하고 있던 군대와 합류하지 못하

9) 알타가 크림 반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1945년 2월의 3개 강대국 정상 회담을 크림 회담이라고도 한다.

10)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1945~1970 гг)/극동의 국제관계(1945~1970년)/ М., 1957, с. 600.

도록 하고, 셋째, 소련이 참전하지 않을 경우 연합국측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대규모의 추가적인 군사적 손실을 면하기 위해 소련측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였던 것이다.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본 전쟁에 참전하는 의무를 수용하면서 소련은 전 세계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참화를 불러왔던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앞당기는 노력을 보였다. 전쟁의 최우선이자 기본 단계인 서부 전선에서는 완전한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 상황이 허락하는 한 동부에서 전쟁의 두번째 위험한 근원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평화는 모든 민족에게 필수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전쟁의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소련 국민들에게 있어 평화는 보다 긴급하였다.

소련은 앞에서 언급한 일반적 목적 외에도 대일본 전쟁 참전을 위한 자국의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1904~1905년 러일 전쟁 시기 러시아의 패배를 잊지 않고 있었는데, 이 전쟁의 결과 일본은 극동에서 러시아 영토의 일부를 병합했던 것이다. 러시아 내전 시기(1918~1922년) 일본은 많은 외국 간섭 세력들 중 가장 먼저 러시아의 극동 지역을 침공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쫓겨났다. 러시아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도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일본 침략자들에 맞서, 저항에 참여하였다. 소련인들에게는 일본의 개입에 의한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의 기억이 남아 있었다.

1941년 6월 파시스트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였을 때 독일과 동맹 관계에 있던 일본은 똑같은 침공을 동쪽으로부터 수행하고자 준비하였다. 소련의 불굴의 투쟁과 침략자들에 대한 승리는 그것을 저지하였으며, 이에 일본은 아시아와 태평양에 대한 침략 행동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본은 소련에 대한 공격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소련은 독일 전선에 매우 긴급했던 40~50개 사단을 극동에 고정 배치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독소전쟁의 전 기간 일본은 1941년의 중립 조약에도 불구하고 소련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노골적으로 취하였다. 일본은 해양에서 소련의 극동 연안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사실상 봉쇄함으로써 소련에 제공되는 연합국 군사 물자의 수송을 방해하였다. 소련 선박들의 대한 해협을 비롯한 여타 해협 통행이 금지되었다. 1941~1944년 일본 함대는 다양한 구실로 178척의 소련 상선을 나포하였으며, 상선의 선원들에게 자주 사격을 가하였다. 3척의 소련 함정이 일본 잠수함에 의해 격침되었다. 조선과의 국경 지역을 포함한 지상의 국경에서는 일본의 무력 도발 행위가 빈번히 자행되어 소련 국경수비대원들이 희생되었다.

결론적으로 소련이 제국주의 일본에 대해 충분히 크고 중요한 추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 오래 된 계획이 소련을 제2차 세계대전의 최종적 근원을 제거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유력한 근거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2. 대일본 전쟁 준비

소련이 실질적으로 대일본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944년 가을이었다. 소련군 총참모부는 이에 필요한 병력, 무기, 장비 등의 수량을 계산하였으며, 장래 전투 행동이 벌어질 지역, 적의 상황 및 병력 배치 등을 관찰하였다. 연합국과의 알타 회담 이후부터 모든 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음은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파시스트 독일이 패배한 1945년 5월 8일 이후에야 전반적으로 진행되었다. 소련의 대일본 전쟁 준비는 정치적·군사적·경제적 방면에서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1945년 4월 5일 소련은 1941년 4월 일본과 맺었던 중립 조약의 폐기를 선언하였다.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이를 항시적으로 위반하고 있었다. 소련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 조약은 '독일의 대소 공격 이전, 그리고 일본과 미국·영국 간의 전쟁 발발 이전'에 조인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 당시와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독일은 소련을 침공하였으며,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은 그 전쟁에서 소련에 반대하여 독일을 지원하였다. 게다가 일본은 소련의 동맹국인 미국, 영국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과 소련 간에 조인된 중립 조약은 그 의미를 상실하였으며, 이 조약의 연장은 불가능하게 되었다.¹¹⁾

중립 조약의 파기(폐기 통고)가 일본에 심각한 경고로 작용하였을 것이지만, 일본은 이에 상응하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연합국에 대한 전투 행동을 지속하였다.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이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였다. 소련은 연합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였으나 1945년 8월 8일에야 이를 공표하였다.

또한 동시에 일본의 운명적인 패배 후에 소련이 극동에서 취할 장래 정책의 근간이 설정되었다. 그 정책의 기초는 1945년 6월 소련 외무인민위원회(외무부)에서 정부를 위해 준비한 제안서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제안서에서는 조선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2) 일본은 조선에서 영원히 축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조선을 일본의 지배하에 두는 것은 소련 극동에 대한 항시적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

11) Там же, с. 601.

다. 3) 조선의 독립은 일본뿐 아니라 동쪽으로부터 소련을 압박하고자 기도할 수 있는 여타 강대국들이 조선을 소련에 대한 장래의 침략 교두보로 삼는 것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이 틀림없다. 조선의 독립과 동부에서 소련의 안전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확실한 보장은 소련과 조선 간에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래 조선 정부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¹²⁾

우리가 인용한 문서에서 중요한 것은 소련 정치가들이 조선을 일본 식민 압제로부터 영원히 벗어난 실제적인 독립 국가로 보려는 분명한 지향이다. 소련에 인접한 나라가 우호적이고, 이제 더 이상 일본 혹은 여타 적대국들의 압력이나 침략을 위한 교두보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들의 희망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한 희망은 자국의 안보에 대한 소련의 근거 있고 합법적인 우려에 기인하였다.

알타 협약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 이어지는 문서들에서도 조선에 대한 소련의 어떠한 정치적·경제적·영토적 요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모두는 앞에 언급한 러시아의 목적, 즉 우호적인 조선을 이웃에 두고, 소련 극동 지역을 위협하는 긴장 혹은 전쟁의 진원지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상의 목적에 의해 제한을 받았다.

1945년 중반 일부 소련 문서들에서는 소련을 위해 장래 한반도에서 진해-부산, 인천, 제주도 등 3개의 '전략 지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의 구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제안의 발의자들은 소련-중국 공동 해군 기지인 여순항에 대한 소련 함정의 자유로운 입항을 보장하기 위해 이 '전략 지역'들을 이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전략 지역'들을 소련과 중국의 공동 통제하에 두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¹³⁾ 그러나 이

12) 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АВПР)/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Фонд 0430. Опись 2. Портфель 5. Дело 18. Лист 29.

제안은 단지 기안 단계에 머물렀으며 소련 지도부에 의해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앞의 제안이 언급된 문서에 대한 해협에 위치한 쓰시마 섬을 조선에 제공한다는 제안이 있음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 제안은 “역사상 쓰시마 섬은 대륙 국가들, 특히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교두보로 기능하였다”¹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948년 9월 이승만은, 그의 말에 의하면 쓰시마 섬이 조선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쓰시마 섬을 조선에 반환하라고 일본에 요구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요구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으로써 쓰시마 섬에 대한 조선의 권리 문제는 곧 시들어버렸다.¹⁵⁾

정치적인 문제들이 소련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 결정되고 있는 동안 보다 높은 강도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의 준비가 진행되었다. 극동 지역의 경계를 장래의 전투 작전 수요에 응하도록 전환하고, 철도의 통행 능력을 강화하며, 여타의 모든 운송 수단들의 상태를 향상시키고, 극동의 도시들과 모스크바 간의 통신선을 확장하며, 재차 극동에 배치되는 군부대들을 위해 주둔지를 마련하고, 태평양 함대를 군사장비 면에서 강화시키는 일 등이 필요하였다. 이 모든 사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극동으로의 병력, 장비, 무기 이송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경우라고 말해도 별로 과장이 아니다. 이것들은 소련 서부 지역뿐 아니라 소련군이 독일과의 전쟁을 종결한 후 배치하고 있던 독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여타 동유럽 지역으로

13) АВПР. Фонд 0431/1. Опись 1. Портфель 8. Дело 52. Лист 42.

14) Там же.

15) АВПР. Фонд 1ДВО Референтура по Корее(조선 리포트). Опись 8. Портфель 6. Папка 6. Лист 89 ; Информация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ереданная по бодо сеульская радионформация)/북한으로부터의 정보(서울 라디오방송 전송).

부터도 이송되었다. 그들은 극동에 도달하기 위해서 9천~1만 2천km 거리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과해 내야 했다. 참고로 지구의 적도 둘레는 4만km이다.

극동으로의 대다수 병력 및 군수 물자 수송은 1945년 6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졌다. 총괄적으로 보면 그곳으로 병사 및 장교 40만 명 이상, 포 및 박격포 7천 문, 전차 및 자주포 2천 대, 화물차 1만 7천 대, 막대한 양의 화기, 탄약 등이 운송되었다.¹⁶⁾ 항공기는 중간 기착을 위해 건설된 공항들을 통해 이동하거나 철도로 운송되었다. 서부로부터 이동한 병력은 많은 전투 경험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극동에 전개된 소련군 집단을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대폭 강화시켰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완수된 거대한 사업의 결과 극동의 소련 군사력은 일본과의 전쟁이 개시될 당시 174만 7천 명에 달하였다. 그들은 포 및 박격포 약 3만 문, 전차 및 자주포 5천대 이상, 전투 항공기 5천 문 이상, 대형 전함 93척 등을 운용하였다.¹⁷⁾ 그들은 일본 관동군에 비해 병력 면에서 1.2배, 전차 및 포 4.8배, 항공기 1.9배로 우세를 보였다.¹⁸⁾ 이와 같은 강력한 군사력의 극동 집결은 소련이 일본을 강력한 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을 보다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 동안에 일본에 대한 전투 행동을 전개하고자 의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관동군 및 그에 합류한 만주국군과 여타 괴뢰 집단 병력에 대항한 전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극동 전선, 제2극동 전선 및 자바이칼

16) Истор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39-1945(제2차 세계대전사 1939-1945년. T. 11. M., 1980, с. 193.

17) Там же, с. 197.

18) Победа СССР в войне с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послевоенное развитие Восточной 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 37.

전선 등의 3개 전선이 조직되었다. 제1극동전선(사령관은 K. A. 메레츠코프 원수)은 연해주 지역에서 만주로 진격하도록 되어 있었다. 마침 그 군대의 공격 지역에 조선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의 해방을 직접적으로 담당한 것은 I. M. 치스짜코프 대장이 지휘하는 제25군이었다. 제25군은 태평양 함대(사령관은 I. S. 유마셰프 제독)와 병진하였다. 극동 소련군 총사령관인 A. M. 바실레프스키 원수가 작전을 총지휘하였다.

전투가 개시되자 조선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제17전선이 관동군에 편입되었다. 소련이 전쟁에 참전한 1945년 8월 9일 일본군 총사령부는 동경에서 관동군에 훈령을 내렸는데, 그 훈령에서는 특히 “관동군 총사령관은 소련에 대항, 주력을 집결시켜 적을 분쇄하고 조선을 수호하라”¹⁹⁾고 지시하였다. 중국에 주둔해 있던 일본 원정군에게는 병력과 군수 물자를 만주와 조선으로 즉각 이동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졌다.²⁰⁾ 이 훈령은 일본에 조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일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식민지를 얼마나 열정적이고 완강하게 수호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3. 조선에서 소련군의 전투 행동

1945년 5월 8일 파시스트 독일이 항복하였다. 독일 수도인 베를린의 중심부에 위치한 레이흐스타그(제국의회) 건물 위에 승리의 소련 깃발이 게양되었다. 알타 회담에서 예정한 바와 같이 그로부터 정확히 3개

19) 타쿠시로 하토론, Там же, с. 559.

20) Там же.

월이 지난 8월 8일 소련은 일본에 대해 선전 포고를 하였다. 소련 정부의 성명서는 일본의 침략에 대항한 전쟁에 참전하라는 연합국의 제안을 소련이 받아들였음을 언급하였다. 왜냐하면 소련의 참전은 “평화의 도래를 앞당기고, 인류를 계속되는 희생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며, 일본 국민들에게 독일이 무조건 항복을 거부한 후 겪었던 것과 같은 위협과 파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유일한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성명서는 8월 9일부로 “소련은 일본과 전쟁 상황에 돌입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²¹⁾라고 통첩하였다.

전쟁 개시 전날인 8월 8일 소련 극동군 총사령관인 A. M. 바실레프스키 원수는 조선인들에게 조선인들을 향해 일본에 저항할 것을 권고하는 특별 격문을 띄웠는데, 이것은 소련이 일본과 조선을 분리하여 조선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었다.²²⁾

8월 8일과 9일 사이의 야간에 소련 폭격기들이 웅기(雄基), 나진(羅津), 청진(淸津)의 일본 군사 시설들에 최초의 폭격을 감행하였다. 사전에 창설되어 특별하게 훈련된 선두 연합 부대들이 새벽 1시 공격 준비 포격 없이 기습적이고 전격적으로 국경을 따라 구축된 일본군 요새 지역들에 배치되어 있는 수비대를 공격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수비대의

21)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1945~1970 гг), с. 606.

22)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써어져 있다. “조선인들이여! 당신들의 압제자들에 맞서 신성한 전쟁에 떨쳐 일어나십시오! 스스로의 적극적 투쟁을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획득하십시오. 자유와 독립의 깃발이 서울의 하늘 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후방의 조선인들이여, 전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여 일본의 군사적 조치들을 좌절시키십시오. 빨치산 부대를 조직하십시오. 가능한 곳에서 일본인들을 무찌르십시오! 전선의 조선인들이여, 충구를 일본인들에게 돌리십시오. 일본 장교들을 처단하고 적군(赤軍)에게로 넘어오십시오! 조선인들이여, 우리와 당신들의 공동의 적은 일본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본 압제로부터 당신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당신들을 친구로서 도울 것임을 알아주십시오. 일본 침략자들에게 죽음!”
Отношен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народной Кореей 1945-1980.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 (소련과 인민 조선과의 관계 1945-1980년. 문서 및 자료), М., 1981, с. 6.

장교와 병사들은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불의의 습격을 받고 저항다운 저항 한번 전개하지 못하였다. 선두 부대들은 적의 방어진을 격파하여 주력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관동군 제1전선 부대들이 제25군과 대적하였다. 제25군은 그들에 맞서 조선의 북쪽 및 북서쪽과 접경해 있는 동만주 지역에서 주로 군사 작전을 펼쳐야만 했다. 제25군 공격범위의 폭은 285km이며, 도로가 거의 없고 병력과 장비의 기동이 극히 불편한 환경(산악, 통행이 불가능한 삼림, 소택지, 급속한 물살의 강)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25군은 접근이 곤란한 지형상의 이점을 활용하는 적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만주 깊숙이 뚫고 들어갔다.

조선 방면의 보조 공격은 제25군에서 분리된 남부 집단(지휘관은 G. I. 사닌 소장)이 담당하였다. 최초 남부 집단은 제386보병 사단과 수개의 다른 지대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후 제393보병 사단이 추가 배속되었다. 남부 집단은 이미 8월 9일에 조선 영토의 첫번째 도시인 경흥(慶興)을 해방시켰다. 이후 남부 집단의 일부 부대가 회령(會寧)과 도문으로 움직였으며, 남부 집단 예하 다른 부대들은 조선 북동부 연안의 항구들로 진격하였다. 그들이 진격한 도정에서도 적과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음은 물론이다.

한편 소련군의 전투 행동은 증가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매일 폭격기와 전폭기들이 적의 비행장과 해군 기지들에 수십여 차례 공습을 가하였다. 8월 12일 항공기와 태평양 함대는 일본 수송선 2척과 대형 전함 2척을 격침시켰고, 일련의 군사 시설물을 파괴하였다. 그 결과로 일본 연안 방어 체계가 상당히 약화되었지만, 저항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소련 해군 및 지상군에 의한 수차례의 대규모 상륙 작전 수행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8월 11일 태평양 함대의 1개 함선단은 I. S. 이바노프스키 해군 소장

의 지휘하에 웅기에 육전대를 상륙시켰다. 육전대는 1개 육전 대대와 함께 소련 영웅 V. N. 레오노프 대위가 지휘하는 태평양 함대 참모부 소속 제140정찰대로 구성되었다. 이 부대는 독일과의 전쟁시 적 후방에 대한 용맹스러운 기습으로 칭송받았던 바가 있다. 이 부대는 조선을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도 그때처럼 용감하게 행동하였다. 웅기에서 레오노프의 부대는 그와 같은 과감성을 예상하지 못한 적의 동요를 이용하여 부두에 신속하게 상륙한 후 육전대 주력이 이 해군 기지를 아무런 손실 없이 점령할 수 있도록 항구 전체를 신속하게 장악하였다. 그 부대와 거의 동시에 제393보병 사단이 웅기로 돌입하였다. 사단은 이 도시에 약간의 수비대만을 남긴 채 나진 방면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다.

E. E. 폴타프스키 1등 대위가 지휘하는 태평양 함대 소속의 또 다른 함선단은 8월 12일 불리한 기상 상황하에서 나진에 육전대를 상륙시켰다. 기관 단총으로 무장한 선두 부대는 전투를 치르면서 항구로 돌입하여 교두보를 확보한 후 상륙군 주력이 상륙할 때까지 지탱하였다. 다음날 동이 틀 무렵에는 제2상륙 제대인 A. R. 스티웨프 대위의 제358육전대대가 전투에 투입되어 수시간 동안의 전투로 항구와 도시의 주요 부분을 장악하였다. 8월 14일 제393보병 사단은 나진에서 철수한 일본군을 격파한 후 육전대와 합동으로 적을 도시로부터 완전히 몰아냈다.

웅기와 나진을 장악함으로써 이제 소련군은 조선 북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대규모 일본 해군 기지와 공업 중심지인 청진을 점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곳에는 2개의 방어선(지하 연결 통로, 참호, 지뢰 지대 등이 설비된 강화 진지 180개소)에 4천 명 규모의 일본군 수비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바다에서 항구로 접근하는 지역은 연안포대가 수비하였다.

청진 점령을 위한 상륙 작전에는 제335보병 사단, 제13독립 육전 여단, 기타 일련의 부대가 투입되었다. 육전대의 수송과 엄호를 위해 60

척의 각종 선박이 동원되었다. 전투기 261대가 공중 엄호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육전대는 V. P. 트루쎄 소장이 지휘하였으며, 상륙은 A. F. 스투데니츠닉 1등 대위가 지휘하였다.

8월 13일 A. Z. 데니신 대좌가 지휘하는 선두 육전대(앞에 언급한 태평양 함대 참모부 소속 제140정찰대 및 제390독립 육전 대대 예하 1개 자동총 중대)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장거리 이동을 한 후 전투 정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6척의 수뢰정에 분승하여 청진항으로 직접 진입해 들어갔다. 이 부대는 돌연한 기습을 통해 항구를 신속히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이 즉시 동요를 수습하고 반격을 가함에 따라 소수(181명)의 소련군 부대는 방어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8월 14일 새벽 제1상륙 제대인 M. P. 바라볼코 소좌의 제355독립 육전 대대가 선두 부대와 연합해서 청진을 점령한 후 상륙군 주력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을 장악하는 임무를 가지고 청진항에 상륙하였다. 바라볼코 소좌의 대대는 선두 부대와 합동으로 항구에 교두보를 확보하였지만 예비대를 동원하고, 상륙에 맞서 항공기를 투입하며, 심지어는 포가 장착된 장갑 열차까지 동원한 적의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려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였다. 공항의 열악한 기상 조건으로 인해 소련 항공기들은 수시간 동안 상륙 엄호를 위한 이륙을 하지 못하였다. 함선들만이 바다로부터 포격을 통해 상륙군을 엄호하였다. 육전대와 정찰 대원들은 그들을 해안으로 내쫓아 바다로 던져버리려는 적의 반격에 용맹 무쌍하게 대항하였다. 함선으로부터 황급히 상륙하여 적 후방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G. V. 체르노프스키 3등 대위가 지휘하는 소규모의 육전 부대가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8월 15일 제2상륙 제대인 제13육전 여단과 이 여단을 증강시키기 위해 배속된 수개 부대가 트루쎄 소장의 총지휘하에 도착하였다. 이날 날씨가 점차 좋아짐에 따라 상륙군은 항공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

나 상륙군이 보유하고 있던 화기(포, 박격포 등)는 이를 운송하던 수송 차량 가운데 2대가 청진에 진입하는 중에 지뢰를 밟고 파괴됨에 따라 도착이 늦어졌다. 그 지뢰들은 미국 항공기가 조선 항구의 입구에 흩뿌려놓았던 것들이다.²³⁾ 따라서 여단은 일본군을 항구에서 격파하여 도시 외곽으로 후퇴시키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청진을 완전히 점령하기에는 전력이 부족하였다. 선박을 통해 상륙 주력(제335사단)이 도착하고, 전투를 펼치면서 연안을 따라 진격하던 제393사단이 도시로 진입한 연후인 8월 16일 오후에야 청진은 완전히 해방되었다.

청진 상륙 작전은 태평양 함대가 조선에서 지상군과 합동으로 전개한 작전 중에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작전이었다. 이 대규모 일본 해군 기지 점령은 연안 방면의 관동군 방어 체계를 붕괴시켰다. 일본인들은 한반도의 중요한 지탱점일 뿐 아니라 병력, 장비 및 가치 있는 물자들을 일본으로 소개시킬 수 있는 본국과의 교통로를 상실하였다.

알려진 바와 같이, 8월 14일 일본 정부는 연합국에 의해 과거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무조건 항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에는 8월 15일에야 이 사실이 알려졌다. 당일 모든 인민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식민지 압제로부터의 탈피를 환희로 맞아들었다. 그 이후부터 한국, 러시아와 여타 우호 국가들에서는 매년 8월 15일을 한국 해방의 날로 경축하고 있다.²⁴⁾

23) 미국은 대일전을 위해 소련군에 군수 지원을 하였지만 소련의 급속한 진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24) 8월 15일 제25군사령부는 해방된 조선인들에게 호소문을 발표하였는데, 거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조선 민족이여! 소련군과 연합군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축출하였습니다. 조선은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지만, 이는 단지 새로운 조선 역사의 첫발일 뿐입니다…….

조선 인민들이여! 행복은 당신들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아주십시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획득하였고, 이제 당신들의 운명은 바로 당신들 자신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소련군은 조선 민족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활동을 위한 모든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항복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 동의가 만주와 조선에서의 전투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시킴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일본 지도부는 8월 18일야 그곳에 주둔해 있던 군대에 관련 지시를 하달하였다. 관동군 예하 많은 부대의 지휘관들은 다양한 핑계를 들어 항복 조건의 이행을 지연시켰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진격해 들어온 소련군에 저항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나중에 K. A. 메레츠코프 원수는 제25군의 진격 방향에서 발생했던 한 경우를 회상하였다. 즉 당시 전통적 군국주의 정신으로 무장한 일본군 병사들이 부대 관리권을 넘겨준 장교들을 사살한 후 항복을 거부하면서 전투를 지속했던 것이다.²⁵⁾ 소련군은 그와 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조선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수차례의 전투 작전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의 북동부 해안에서는 아직도 어대진(漁大津)항과 원산 해군 기지 등 2개의 지탱점이 일본군 지휘부의 수중에 놓여 있었다. 8월 19일 저녁 초계함 1척과 수뢰정 6척이 어대진항으로 진입하였다. 1개 육전 대대와 1개 자동총 중대(총병력 800명)가 함정으로부터 부두로 상륙하였다. 그들은 후에 포로가 된 소규모의 적 병사들만이 남겨진 항구와 도시를 한 시간 만에 완전히 점령하였다.

관동군 소속 제17조선 전선군은 8월 19일 항복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부 예하 부대에서는 저항을 계속하였고, 일본 지도부가 원산을 통해 자국의 병력을 일본으로 철수시킬 위험성이 실재하였다. 따라서 이 해군 기지를 시급히 장악하여 그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원산 역시 매우 잘 설비되어 있었다. 바다 쪽으로는 6개 포대와 기뢰 부설함들이 방어에 임하고 있었다. 6천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일본군

조선 민족은 스스로의 행복을 만드는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Там же, с. 6~7.
25) Мерецков К. А. На службе народу(인민에의 복무). М., 1984, с. 428.

집단이 그곳을 수비하고 있었으며, 도시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또 하나의 유사한 일본군집단이 배치되어 있었다. 소련군 사령부는 원산 장악을 위해 제335보병 사단 예하 부대, 육전 지대 및 태평양 함대 소속 제140정찰대 병력(총병력 1,847명)으로 구성된 육전대를 군함 4척, 수뢰정 6척에 탑승시켜 파견하였다.

소련 함정들은 8월 21일 아침 원산으로 접근하였다. 일본군 해안 포대는 침묵하였다. 항구에 상륙한 육전대는 붉은 기를 흔들고 있는 약 5천 명의 조선인들을 만났다. 일본 수비대는 전투를 수행하지도, 항복을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다음날이 되어서야 서서히 무장 해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인들은 약 50대의 정비된 항공기가 있는 지역 공항을 통해 원산에서 지휘부와 가치 있는 물자들을 철수시키기를 희망하였지만,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8월 22일 오후 늦게 원산의 수비대는 완전히 항복하였다.

한편 제25군 주력은 사전 계획에 따라 만주 지역에서 군사 행동을 수행하면서 조선으로 접근해 왔다. 8월 17일 조선과 접경한 중국 도시인 도문과 옌지를 점령하였다. 이후 제25군 소속 선두 부대가 즉시 조선으로 진입하여 일본군의 항복을 받으면서 남쪽으로 진격하였다. 소련군 사령부는 일본인들에 의한 주요 산업 시설 파괴와 약탈 물자의 반출을 막기 위해 공수 부대를 투입하였다. 8월 24일 공수 부대들이 북한의 가장 규모가 큰 산업 중심지인 평양과 함흥에 투하되어 그곳 일본군 수비대들의 항복을 받았다.

8월 26일 제25군 사령관 I. M. 치스짜코프 대장이 보좌관들과 함께 항공기를 통해 평양으로 날아왔다. 그들은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조선인들이 마련한 간단한 집회에 참석했다.²⁶⁾ 다음날 제25군 참모부와

26)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조선 해방 회상 및 논문). М., 1976, с. 46.

나머지 지휘 기관들이 평양으로 이동하였다.

9월 첫젯날 소련군은 소련과 미국의 사전 협의에 따라 조선의 북쪽 지역에서는 소련군에 의한 일본군의 무장 해제가, 그리고 그 남쪽 지역에서는 미군에 의한 무장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분계선인 38도선까지 진격하였다. 당시 미군은 조선 영토에 진주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미군은 알려진 바와 같이 9월 8일야 조선에 진주하였다), 제25군은 일본군을 포로로 잡으면서 38도선 남쪽으로 일부 전진하였다. 제25군의 일부 부대는 심지어 서울 부근까지 접근하였다. 하지만 이후 제25군 예하 모든 부대는 그곳으로부터 철수하여 38도선 이북에 집결하였다.

조선에서 소련군의 전투 행동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소련군은 극동에서 일본 침략자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는 데 실질적인 공헌을 하였다. 공식 자료에 의하면 1945년 8월 말 현재 제25군은 만주와 조선에서 13만 8천6백 명의 일본군 병사와 장교를 포로로 잡았다.²⁷⁾ 나중에 I. M. 치스짜코프 장군은 6천 명의 장군 및 장교를 포함하여 총 17만 명의 포로를 잡았다고 하였다.²⁸⁾ 이 수치는 조선의 해방을 위해 소련군이 행한 군사 작전의 규모를 말해 주고 있다.

1944년 봄부터 일본이 조선인들에 대한 전 국민 징병제를 확대 실시하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소련측 자료에 의하면 1944~1945년에 편성되어 만주와 조선에 배치된 일본군 부대의 경우 병사들 중 15% 이상이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²⁹⁾ 극동 소련군 총사령관 A. M. 바실레프스키 원수가 앞에 인용한, 조선인들에게 보낸 격문에서 특

27) Центральный архив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Ф(ЦАМО)/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 Фонд 379. Опись 11019. Дело 9. лист 179~180.

28)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 с. 48.

29) Истор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39-1945, с. 175.

히 일본군으로 복무하는 조선인 병사들에게 적군(赤軍)측으로 전향하라고 호소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일본군 병력 중에서 1945년 8월 말 제25군에 붙잡힌 포로 중 조선인이 5,059명이었다.³⁰⁾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된 조선인들이 당시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즉 중국의 도시인 무단장(牧丹江)에서는 일본군이 무장 해제되기 전에 조선 병사들이 일본인들의 무기를 탈취하여 소련군에게 양도한 후 스스로 포로가 되었다. 포로 이송시 조선인들은 일본인들과 분리되었으며, 포로 수용소에서조차 분리 수용되었다.³¹⁾ 그들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본국에 송환되었다.

4. 해방 임무의 대가

1945년 8월 극동에서 소련군이 수행한, 시간적으로 길지 않은 군사 작전은 그들에게 있어 전혀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은 것이었다. 1941~1945년의 태평양 전쟁을 다룬 외국 출판물들 중 객관적 학술 기록과는 거리가 먼 출판물에서는 때때로 일본 침략자들에 대한 소련군의 진공을 일종의 유쾌한 일요일의 산책 정도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련군은 잘 장비되고 훈련된 대규모의 관동군과 대적하였다. 관동군은 사전에 준비되었으며, 잘 조직되고 강화된 강력한 방어 체계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어 체계의 격파는 소련군에게

30) ЦАМО. Фонд 379. Опись 11019. Дело 9. лист 179~180.

31) ЦАМО. Фонд 32. Опись 11306. Дело 692. лист 39.

많은 노력을 요구하였다. 또한 일본군을 향해 진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형 및 험악한 기후 환경(홍수기)과 맞닥뜨려야 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소련군은 강력하고 경험 많은 관동군이라는 적을 만났다. 관동군 병사 및 장교들은 전통적인 호전성을 체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수년간 소련에 대한 적대적 선전을 들어왔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소련군의 진격은 완강하고 격렬한 적과의 힘든 전투를 수반하였다. K. A. 메레츠코프 원수는 이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심각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맹렬하게 저항하였으며, 전투를 치르지 않고서는 한 곳의 지탱점이나 고지도 넘겨주지 않는다는 보고서들이 매일같이 올라왔다.”³²⁾고 쓰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에 대한 소련군의 승리는 매우 값비싼 대가를 필요로 하였다. 25일간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관동군에 대한 전투 행동이 전개된 총 3개의 전선(자바이칼 전선, 제1극동 전선, 제2극동 전선)에서 모두 3만 5천 명 이상이 전사, 부상 혹은 질병 등의 손실을 겪었다.³³⁾ 이 손실의 60%는 진격 방면에 조선이 포함되었던 제1극동 전선의 몫이 되었다. 동일 기간 태평양 함대는 1,298명이 피해를 입었다.³⁴⁾

만주와 조선 영토에서 전투 수행시 제25군이 입은 손실은 4,717명이었다.³⁵⁾ 조선에서 소련군(지상군, 함대 및 공군)은 1,963명의 인적 손실을 당하였는데, 그 중 528명은 전사, 부상에 의한 사망 및 병사였다.³⁶⁾

32) Мерещков К. А. Там же, с. 428.

33) Гриф секретности снят. Потер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ССР в война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военных конфликт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비밀 해제. 전쟁, 전투 행동 및 군사 분쟁에서 소련군의 손실. 통계 연구), М., 1993, с. 281~283.

34) Там же, с. 303.

35) ЦАМО. Фонд 379. Опись 11019. Дело 9. лист 179~180.

36) Гриф секретности снят. Потер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ССР в война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조선 영토 내 소련군 전투 행동 과정에서는 대일본 전쟁의 격렬하고 유혈적인 성격을 증명하는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중 일부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태평양 함대 소속 항공 연대 중 한 연대의 조종사인 미하일 안코는 전쟁 첫날 발군의 공적을 세웠다. 소규모 항공 집단에 속해 있던 그의 비행기는 용기항에서 3개 대공 포대를 파괴한 후 동일 장소에서 일본군 수송선을 격침시켰다. 그는 곧 나진항 폭격에 참여하여 또 한 척의 일본 수송선을 격침시켰다. 그러나 안코의 비행기는 공격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타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하였다. 조종사 및 그와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격수 I. 바브킨은 낙하산으로 탈출할 수도 있었지만, 이는 곧 적의 포로가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용감한 승무원은 죽음을 택하고는 항구에서 가장 큰 건물인 일본 헌병 지휘부로 불타고 있는 비행기를 몰고 가 그것을 파괴하였다.³⁷⁾

때때로 소련군 병사들이 일본군에 포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젊은 위생병인 마리아 추카노바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녀가 소속되어 있던 육전 대대는 우세한 전력의 적에 맞서 힘겨운 전투를 수행하였다. M. 추카노바는 포화 속에서 부상자들에게 붓대를 감아주고, 그들을 안전지대로 옮겼다. 전투에서 그녀는 부상을 당한 후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반격으로 전환한 일본군은 그녀를 붙잡아 자기 진영으로 옮겨갔다. 육전대가 일본군의 반격을 격파하여 퇴각시켰을 때 그들은 M. 추카노바의 시신을 발견하였다. 야수와 같은 일본군 병사들이 그녀의 눈을 빼고 칼로 몸을 난도질하였다.³⁸⁾

военных конфликт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с. 325.

37)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 с. 161 ~ 162.

38) Красная звезда(赤星), 1945년 8월 24일.

젊은 장교인 미하일 크뤼긴은 청진을 기습한 상륙군의 일원으로 일본군과 싸웠다. 격렬한 전투의 순간 그는 전사한 자동총 소대장을 대신하여 그 직책을 수행하면서 이 소대의 공격을 12차례나 이끌었다. 총탄과 수류탄이 떨어진 뒤 한 차례의 공격 과정에서 M. 크뤼긴은 백병전으로 일본군 장교의 군도를 탈취한 후 공격하는 일본군 병사들을 그것으로 격퇴시켰다. 그의 옆에서 그의 동지 가운데 한 명이 쓰러졌다. M. 크뤼긴이 그를 돕기 위해 그쪽으로 고개를 숙인 바로 그 순간 적의 총탄이 그를 쓰러뜨렸다. 일본군 병사들은 이미 숨진 그를 덮친 후 자기들의 참호로 끌고 갔다. 다음날 일본군 참호를 격파한 육전대가 M. 크뤼긴의 시신을 발견하였는데, 그의 사체 역시 칼과 총검에 의한 자상투성이였다.³⁹⁾

전투가 진행중인 청진에서 군사 신문인 『赤星(Красная звезда)』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육전대 전사인 유슈코프의 공적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격시 그는 앞으로 많이 뛰어나갔다. 그를 포로로 잡기 위해 10여 명의 일본군이 달려들었다. 유슈코프는 격렬한 접전에서 여러 곳에 부상을 당했지만 사격을 계속하였다. 탄약이 바닥났다. 한 명의 장교가 포함된 일본 군인들이 달려들었다. 유슈코프는 대전차 총탄을 탈취해서 그를 포위한 일본군 모두와 함께 자폭하였다.⁴⁰⁾

조선 및 극동 전선에서 소련군이 전투 행동을 수행하던 시기에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위에 인용된 사례들은 비록 소련군의 전투 행동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면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39)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 с. 226~228.

40) Красная звезда, 1945년 8월 23일.

모두는 전투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소련군 병사들이 광적으로 저항하는 일본군에 대해 어떠한 용맹성과 확신을 가지고 전투에 임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공적은 자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8명이 소련 영웅 칭호를 받았으며, 수천 명에게 국가 훈장이 수여되었다.

5. 최초의 우호적 접촉

많은 조선 인민들은 소련의 대일본 전쟁 참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소련군을 증오스러운 식민지 압제로부터 조선을 해방시킨 존재로 받아들였다. 대체로 조선인들은 진격하는 소련군을 가능한 한 돕고자 하였다. 자신들 조국의 해방을 위해 피를 흘린 사람들에게 대한 그들의 협조를 보여주는 증거는 적지 않다. 그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태평양 함대 소속의 유명한 제140정찰대 일원으로 참전했던 한 퇴역 군인은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육전대가 조선의 어느 항구에 상륙하였을 때 지휘부는 항구와 도시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도에는 일본군 지탱점, 참모부 배치 지점, 화기 진지 등이 표시되어 있었다. 심지어는 친일 분자들의 집, 상륙 부대를 기다리고 있는 위험 지역, 상륙 부대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애국자들의 집까지도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한 정보들이 지하의 항일 전사들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조선인들은 항구로 진입하는 소련 군함이 일본인들이 부설한 수뢰에 아무런 손실도 입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돕고, 알지도 못하는 도시에서 전투를 치르면서 전진하는 상륙 부대의 안내자가 되는 등의 경우도 있었다.

제25군 포병 장교인 I. I. 나자로프는 도문을 점령한 후 조선으로 진출한 그의 부대가 나남(羅南) 지역에서 철도를 통해 평양으로 향했던 때를 회상하였다. 어느 한 역에서 기관차의 보일러가 새어서 I. I. 나자로프가 탄 열차가 멈춰 섰다. 고장난 곳을 고치기 위해서는 기관차 화실의 불을 끄고 완전히 냉각시킨 후에야 수리에 임할 수 있었다. 이는 군용 열차를 5~6시간 지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김이라는 성을 가진 지역 기관고 노동자가 도와주려고 찾아왔다. 그는 기관차 화실에서 불타고 있는 석탄을 제거하여 일부 냉각시킨 후 젖은 자루와 불에 강한 모포를 둘러쓰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채 신속하게 고장난 곳을 수리하였다. 그 후 그는 기관사가 되어 열차를 평양까지 끌고 갔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부대의 병사들은 그에게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주었다.⁴¹⁾

『프라우다』의 기자는 청진(당시 그 도시는 일본어로 세이신이라고 불렀다)에서의 사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 가운데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중에도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자기 집에 부상당한 소련군 병사와 장교들을 숨겨주는 대담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보였다. 청진 상륙 작전 때 자동총 중대장인 야로츠키 대위가 중상을 입고 일본군 후방에 남게 되었다. 중년의 조선인 양고준(Лянь Го Дзун)은 기력을 잃은 장교를 한 골짜기로 운반해서 적군(赤軍) 부대가 올 때까지 돌봐주었다.⁴²⁾

41)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 с. 67~68.

42) Правда(프라우다), 1945년 8월 25일. 계속해서 이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탱크병 그룹은 우리에게 수시간 더위로 지쳐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젊은 조선 여인이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왔다. 그녀는 시원한 물이 든 항아리를 들고 탱크병들에게 여러 차례 왔다.

육전부대가 도시에서 일본군을 몰아 냈을 때, 가옥, 토치카, 간이진지, 골짜기 등에 적지 않은 수의 일본인 파괴 분자들이 은거하고 있었다. 그들은 길모퉁이에서 소련군 병사와 장교들을 살해하고, 식량 창고를 방화하였다. 그들이 어부, 농부, 일꾼 등

소련군 부대가 진입해 들어간 조선의 도시와 농촌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련군의 만남은 보통 상호 우호적인 감정의 표출, 자신들의 해방에 대한 조선인들의 감사 등을 동반하였다. 원산에 상륙한 육전대가 항구에서 붉은 깃발을 든 5천 명의 조선인을 만났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함흥에 공수 부대를 투하했을 때 종군했던 기자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처음부터 작전은 소련과 조선 인민들의 우호 집회로 변경되었다. 손짓, 몸짓, 미소, 감탄 등으로 의사 소통하였다. 우리 전사들 중 한 명이 전체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우데그인⁴³⁾인 그리고리 콘추가 하사였다. 콘추가는 쏟아지는 질문에 겨우겨우 조금씩 대답할 수 있었다. 하사 주변에 군중의 수가 점점 불어났다. 예기치 않게 집회가 시작되었다. 카발료프 상사가 짧은 한국어로 발표하였다. 그는 일본의 항복을 이야기하고, 적군(赤軍)과 연합군이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있음을 전하였다. 군중은 이 소식을 세 차례의 '만세'로 화답하였다.⁴⁴⁾

위의 기자들은 후에 소련군 공수 부대가 방금 장악한 평양에 도착해

의 복장으로 위장했기 때문에 그들을 비전투 조선인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 무전기로 적 포병의 화력을 유도하고 있는 일본인 첩자가 산 위의 한 농가에 은신하고 있음을 한 조선인이 소련군 장교에게 알려주었다.

조선인 여자들은 사복으로 갈아입은 일본군 장교가 간이 진지에 숨어 있는 것을 육전대에 알려주었다. 그는 오랫동안 계속 자신을 농부로 사칭하였다. 2명의 조선 여성이 어디론가 갔다가 억류되어 있는 자와 꼭 닮은 훈장을 달고 있는 군복 정장의 일본군 대령 사진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 일본인은 자신이 실제로 대령임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43) 우데그인은 러시아 극동 지방의 소수 민족 중 하나이다.

44) Известия(이즈베스티야), 1945년 8월 28일.

서 그 인상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도시의 건물들은 대다수가 파괴되어 있다. 이는 일본 지배의 흔적이다……. 소련군 장교들이 머무르고 있는 철도 회사 호텔이 오늘은 중심부가 되었다. 도시의 모든 거주민들이 크고 작은 깃발을 든 채 전통 악단과 함께 그들에게 모여들고 있다. 호텔 입구의 앞에 연단이 비치된 몇 개의 테이블이 설치되었다. 연설자들은 서로 교대해 가면서 매번 전체의 우렁찬 합성인 ‘만세’와 함께 끝을 맺는 열정적인 연설을 하였다.⁴⁵⁾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8월 25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제25군사령관 I. M. 치스짜코프 대장 역시 비행장에 집결한 조선인들이 조직한 집회의 참여자가 되었다. 그는 조선인들 앞에 등장해서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정복자로서가 아니라 해방자로서 당신들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의 질서를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권력을 잡고 스스로의 미래를 건설하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을 보호하고, 당신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에 이어 등장한 조선인들은 일본 식민 통치하에서 조선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삶을 이야기하고, 소련군에게 감사를 표하였으며, 조선과 소련 국민의 친선을 말하였다. 이후 호텔로 향한 I. M. 치스짜코프는 깃발들이 휘날리며 꽃을 들고 ‘만세’의 합성을 지르는 군중들이 꽉 차 있는 거리를 통과하였다.⁴⁶⁾

45) Известия, 1945년 9월 2일.

46)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 с. 46.

소련 및 그 군대와의 우호적 관계, 해방자들에 대한 감사는 조선의 북쪽뿐 아니라 남쪽에서도 뜨겁게 보여졌다. 주조선 소련 총영사 폴란스키가 모스크바에 보낸 보고서에서는 1945년 8월 16일 서울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서울에서는 정오부터 ‘조선 독립 만세’, ‘적군(赤軍) 만세’ 등의 슬로건을 외친 조선인들의 데모가 자연스럽게 발생하였다. 건물들과 데모자들의 대열에 소련기와 조선 국기가 게양되었다. 일부 건물에는 연합국 깃발이 게양되었다. 시위자들은 역으로 가서 그 앞에 있는 광장에 정렬하였다. 우리 차량은 시가에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든 방향에서 즉시 차량을 에워쌌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모두 악수를 나누고 자신들의 감사를 표하고 싶어하였다. 또한 거리에서 협조자들이 모습을 보였다. 시위 군중들이 영사관 지역으로 와서 집회를 실시하였는데, 그 집회에서도 조선인들이 나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준 적군(赤軍)과 스탈린 동지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였다. 시위는 적군(赤軍) 부대를 맞이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왜냐하면 적군 부대가 서울에 도착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다. 시위에는 전부 합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시위를 진압하거나 해산시키려는 시도는 없었다. 일본 정권은 그렇게 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생각된다.⁴⁷⁾

필자는 독자들이 소련군의 조선 진출 및 일본 정복자들에 대한 승리가 조성한 정신적 고양의 분위기를 보다 잘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에서 많은 사례들을 인용하였다. 조선에 진주한 소련군 부대들이 경험한 대규모의 집회나 시위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47) ЦАМО. Фонд 32. Опись 11306. Дело 605. лист 451.

누군가에 의해 사전에 조직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참여자들의 진정한 의식과 감정이 반영되어 자연스럽게 실시되었다. 소련과 그 군대에 대한 환영사와 감사의 말, 일본군과의 힘겨운 전투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소련군 병사들에게 보여준 원조와 지원, 이것이 바로 1945년 8월 조선인들 스스로가 조선 해방에 대한 소련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6. 결론

소련은 서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근본적인 부담을 자국의 어깨에 걸머졌다. 사망 및 부상자 약 3천만 명(이는 당시 한국 국민의 수와 동등한 것이다), 파괴 혹은 약탈당한 도시 1,710개소, 파괴된 농촌 7만 개소 이상, 이러한 끔찍한 수치는 소련 국민들이 자국의 땅에서 파시스트 독일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이다. 소련에 닥쳤던 혹독한 풍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연합국과 함께 극동에서 세계대전의 두번째 진원지를 제거하기 위해 적지 않은 힘을 모았다.

소련에는 1945년 8월까지 일본을 징벌할 만한 모든 토대를 갖추어 충분히 많은 것이 축적되었다. 하지만 소련으로서 일본과의 전쟁이 더욱 중요했던 것은 자국 국경에 접해 있는 오래 된 침략 진원지를 제거하고 연합국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의 주범 중 하나인 제국주의 일본을 격파하여 극동에 오래 전부터 기다렸던 평화를 가져다주는 노력이었다. 연합국은 1945년 2월 얄타 회담을 통해 소련이 참전에 동의

하도록 하는 등 대일 전쟁에 소련을 참전시키려고 수년 동안 노력하였다. 소련은 연합국과 합의한 정확한 날짜에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스스로가 짊어진 연합국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을 격파하는 데 있어 연합국 중 어느 나라가 가장 큰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논의가 여러 글에서 수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논쟁은 유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명하지도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는 일본에 맞선 국가와 민족들 전체의 성과이다. 미국 대통령 G. 트루먼이 1945년 9월 6일 일본이 항복 문서에 조인한 직후 I. V.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에서 “모든 연합국은 자신들의 현존하는 수단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승리에 기여하였으며, 이제 우리 모두는 모든 평화 우호 국가들에서 장기간의 평화와 새로운 번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⁴⁸⁾라고 언급한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일본 전쟁에 대한 소련의 참전 및 최종적 승리를 위해 소련이 치른 희생에 침묵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은 옳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 소련이 수행한 군사 행동이 단기간의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일본 지상군 주요 전력을 고착시키고 포로로 만들었으며, 더욱이 연합국을 새로운 대규모의 손실로부터 보호하면서 일본의 패망과 제2차 세계대전의 완결을 촉진시켰다.

대일본 전쟁에 소련이 참전하여 수행한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패배한 측에서도 스스로 인정하였다. 예를 들어 포로로 잡힌 관동군 제3 전선 사령관 우시로쿠 준 장군은 “소련의 참전은 일본의 항복을 촉진시켰으며, 심지어 일본이 항복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더 옳바를 것이다.

48) Переписка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с Президентами США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м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во врем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 Т. 2. М., 1957, с. 267.

만약 소련이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일본은 미국, 영국에 대항하여 승리의 마지막까지 싸웠을 것이다.”⁴⁹⁾라고 말했다. 가령 이를 소련군에게 방금 포로로 잡힌 일본군 장군의 아침이라고 회의심을 가지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권위 있는 일본 군사 사학자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소련의 참전은 “일본의 항복을 촉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⁵⁰⁾고 규정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한국을 포함한 식민지 및 종속적이었던 민족들의 독립이다. 일본의 패배로 한국에서는 40여 년간의 식민지 착취가 막을 내렸으며, 이제 그 앞에 밝은 독립적 발전의 넓은 지평선이 열렸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해방된 한국 민족의 많은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고, 그 국가는 곧 침예화된 냉전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는 현재도 한반도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 심지어 그 이후에 비극이 한국을 덮쳤을지라도, 그것들이 1945년 8월 한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워버리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해방에 대해서는 대일본전 승리에 관해 언급된 것과 거의 동일하게 말할 수 있다. 이는 틀림없이 한국인들의 식민 지배자에 대한 용감한 저항을 포함한 모든 반일 동맹국들의 공동 노력과 희생의 결과이다. 공동 투쟁을 통해 모든 참가자들이 기여했던 바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어 소련의 역할은 실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소련군만이 한국에서 일본 정복자들과 직접 교전을 하였고, 소련군만이 한국 땅에 자신의 피를 뿌렸다는 것이다. 그들의 군사적·인간적 의무의 헌신적 수행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시에 있는 수개의 소련

49) Победа СССР в войне с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послевоенное развитие Восточной 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 39.

50) 타쿠시로 하토론, Там же, с. 589.

군 묘지, 평양 중심부 모란봉에 위치한 해방탑 등이 상기시켜 주고 있다. 영미 연합군이 한국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본의 분쇄라는 일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싸웠다면, 소련군은 한국 영토에서 싸웠으며, 1,963명의 생명과 건강을 바쳐 이 나라를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 이러한 근거에서 소련, 현재는 소련의 계승자인 러시아는 누구보다도 자국을 한국의 해방자로 인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문헌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 중에서 소련이 한국 전체를 해방시켰는가, 아니면 한국의 북쪽만을 해방시켰는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한국의 어떤 곳에서 군사 행동이 전개되었는가는 완전히 형식적인 명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덧붙이자면 38도선으로 분리된 북한 지역은 한반도 전체 영토의 절반이 넘는다. 하지만 논의의 초점은 물론 그것에 있지 않다. 책임 구역 분할 합의와 관련하여 소련군이 남쪽으로 진격하지 않았으며, (비록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소련군이 서울까지 도달하였지만)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지 않은 상황을 이유로 소련군의 진격이 전혀 협소한 지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소련군은 육상, 해상, 공중에서의 작전을 통해 한국의 모든 일본군 방어 체계를 붕괴시켰고, 한국 전체의 군사적으로 중요한 기반과 경제 중심지를 일본군으로부터 빼앗았으며, 한국 내 전체 일본군의 상당수를 격파하고 포로로 잡음으로써 일본이 대륙으로부터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련군이 식민지에 대한 일본의 전체 지배 체계를 동요·정지시켰으며, 탄압 기관의 모든(강조는 필자) 활동을 마비시킴으로써 그 기관들이 더 이상 한국 국민들을 감히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38도선 밑에 은거하고 있던 나머지 일본군 또한 미군의 도착을 예기하면서 적극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

다. 소련군 부대 및 함대와 한국의 도시 및 농촌과의 우호적 관계, 그곳에 조직된 민주적 지역 자치 기관과 한국의 민족적 부흥의 첫걸음에 대한 소련군의 협조는 남쪽에서 생생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그곳의 애국적 세력을 강화시켰다.

지금까지 열거된 요소들을 놓고 볼 때 1945년 8월 소련이 한국 전체를 위한 해방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소련(러시아)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의심하는 것은 전혀 무가치하다고 판단된다.

1945년 8월의 전투 이후 50년 이상이 흘렀다. 한국과 러시아에는 당시를 먼 역사로 인식하는 세대가 자라나고 있다. 그들이 이러한 역사를 이해하고, 당시 침략자의 격퇴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 치러진 대가와 공동의 노력으로 양 국가의 선린과 우호 관계를 유지, 발전시켰으며, 전체적인 평화를 보호하였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번역 : 이재훈, 전 국방군사연구소 선임연구원)

참고 문헌

<1차 자료>

АВПР. Фонд 1ДВО Референтура по Корее(조선 리포트). Опись 8. Портфель 6. Папка 6. Лист 89.

АВПР. Фонд 0430. Опись 2. Портфель 5. Дело 18. Лист 29.

АВПР. Фонд 0431/1. Опись 1. Портфель 8. Дело 52. Лист 42.

ЦАМО. Фонд 32. Опись 11306. Дело 605. лист 451.

ЦАМО. Фонд 32. Опись 11306. Дело 692. лист 39.

ЦАМО. Фонд 379. Опись 11019. Дело 9. лист 179-180.

Гриф секретности снят. Потери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СССР в войнах, боевых действиях и военных конфликтах. Статистическ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비밀 해제. 전쟁, 전투 행동 및 군사 분쟁에서 소련군의 손실. 통계 연구), М., 1993.

Отношени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с народной Кореей 1945-1980. Документы и материалы(소련과 인민 조선과의 관계 1945-1980년. 문서 및 자료), М., 1981.

Переписка Председателя Совета министров СССР с Президентами США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м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во время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1945 гг.(1941-1945년 대조국 전쟁기 미국 대통령 및 영국 수상과 소련 내각 회의 대표자와의 서신). Т. 1, 2. М., 1957.

Известия(이즈베스티야), 1945년 8월 28일, 9월 2일.

Красная звезда(赤星), 1945년 8월 23, 24일.

Правда(프라우다), 1945년 8월 25일.

<2차 자료>

Истор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1939-1945(제2차 세계대전사 1939-1945년). Т. 11. М., 1980.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1945 ~ 1970 гг)/극동의 국제관계(1945 ~ 1970년)/ М., 1957.

Мерецков К. А. На службе народу(인민에의 복무). М., 1984.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Воспоминания и статьи(조선 해방. 회상 및 논문). М., 1976.

Победа СССР в войне с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послевоенное раз-

вите Восточной 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군국주의 일본과의 전쟁에서 소련의 승리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전후 발전). M., 1977.

Советская воен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소련군사백과사전). T. 8. M., 1980.

타쿠시로 하토론(Такуси́ро Хатто́рон), Япония в войне 1941-1945(1941-1945년 전쟁에서의 일본). M., 1973.

(Abstract)

The Liberation of Korea : A Russian Perspective

**Yu V. Vanin(Director of Korean and Mongolian Studies at the Russian Institute of
Science and East Asian Studie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ole of the Soviet Union in the emancipation of Korea from various viewpoints that include the Soviet Union's interests in Korea, procedures for war preparation, battle routes of the Soviet army in North Korea, and reactions of Koreans towards the Soviet army moving forward to North Korea before going to war with Japan.

The Soviet Union participated in the Pacific War against Japan from August 9, 1945, three months after the war with Germany ended. The fundamental reason for participating in the war was to strengthen the security in the Far East by removing the Japanese threat to the Soviet Union. Thus, Korea had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after emancipation.

The Soviet Union sent a large military force of over 1.7 million to the Far East in order to confront Japan's large forces stationed in Manchuria and

Korea. The battles against Japan in Korea were much more severe than what is generally acknowledged. Many regions including Chungjin was occupied by the Soviet Union after fierce battles in which as many as 1,963 Soviet soldiers were killed in a matter of a few days.

In general, Korea's attitude towards the Soviet army was quite friendly. Many Koreans provided various means of supporting the Soviet army who fought against Japan, and many more considered the army as their "emancipator"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t is widely believed that both the surrender of Japan and the emancipation of Korea were finally brought about by the U.S. atomic bombs dropped on Hiroshima and Nagasaki. However, the fact that participation of the Soviet army in the war also accelerated the defeat of Japan should also be recognized.

Key Words : Soviet Union, Emancipator, Security, Korea, Japan